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34 밥은 초대

맑은 차에 어렴풋한 기억을 추억하며

영주의 아파트에서 따뜻한 저녁식사를 마치고 나니, 어느덧 시간은 자정을 향하고 있었다. 고작 3일만의 재회지만 그동안의 회포를 풀기 위해 다음은 차(茶) 시간으로 이어졌다. 차가 있는 밤에는 음악이 빠질 수는 없는 법. 영주는 자신이 좋아하는 앨범이라며 건넸다. '포폴부'라는 독일밴드의 전위적인 기타 선율과, 밴드의 일원인 유이상 선생님의 딸인 윤정의 독특한 음색이 감성을 과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모



맑은 감잎차

하게도 좋았다. 차와 음악이 어우러져 적절하게 감미롭고 차분하게 그 무엇을 말한들 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통하는' 밤이 됐다. "언니, 저는 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남다른 다인 선생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처음 차를 배웠을 때도 선생님이 제게 가르쳐주시는 게 나중에 알고 보니 위빠사나였더라고요. 가령 찻잔에 물을 따를 때는 따르는 행위에 집중하고, 찻잔을 옮길 때는 또 그 행위에 집중하는 거예요. 차를 만드는 과정의 행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훈련이었거든요."

시원한 크기의 찻잔에 찻물과 말차 가루를 넣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휘젓던 영주가 차분한 어조로 말을 꺼냈다. 그 얘기를 듣다보니 세삼 작은 손동작 하나, 말 한마디에도 집중을 해보려는 시도가 일어나지만 고작 찻나의 순간에 머물 뿐이다. 하지만 의식하는 찻나에라도 깨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연속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수행과 다름이 있을까. 그러한 생각이 지나치는 사이에도 차를 휘젓는 영주의 손놀림은 쉽 없이 이어져 말차의 경지가 거의 녹차라 때의 수준에 이르렀다.

"그래도 녹차라때 보단 맛이 좋을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저를 필요 없는데, 많이 저어주니까 맛이 한결 부드럽더라고요. 그나저나 언니, 기어코 어제 치킨을 두 마리나 시켜먹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죄책감이 드는지..."

채식주의를 지향하는 영주의 고민에 대해 기껏 고심해 해낸 말이라는 게 "식물도 생명이 있는데 그건 아무렇지 않게 볶아도 먹고 지저도 먹잖아. 치킨도 나물이라고 생각해보"라는 게

고작이었다. 역시나 어설피게 급조한 조연은 통할 리 만무한 법. 그래도 수행을 위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육식도 필요하다는 나의 고집과 불살생의 계율을 위해서는 채식이 불가피하다는 영주의 의견이 맞물려, 어느덧 시간은 새벽을 넘어서고 있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대수이러, 이야기는 무릇 영주와 각별한 사이인 한 도반, 그녀의 어머니와의 인연으로 이어졌다.

"엄마는 나무로 볼 때 밥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항상 마당이 있는 집에 살면서 아궁이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가마솥을 기본으로 세 개는 거는데, 제일 큰 건 뭘 삶거나 할 때 쓰고, 중간 솥은 국 끓일 때, 제일 작은 솥은 밥 지을 때 써요. 전기밥통에 밥 짓는 거와 밥맛이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영주의 남다른 친한 경적인 성향은 그러한 엄마의 영향이 컸던 모양이다. 절에 함께 기도를 다니거나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엄마라는 존재가 영주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도반이자 스승인 듯 싶다.

"여기로 이사 오기 전에는 엄마랑 경주 외곽 산 옆에 살았어요. 그때 정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엄마랑 저녁 일찍 밥해먹고 차 마시는 시간도 좋았고, 엄마가 들어가 주무시면 겨울에 아궁이 옆에 앉아 불을 보는 것도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명상이 되더라고요. 그런 여유로움도 좋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도둑이 들면서 이곳으로 이사 오게 된 거예요."

산중생활은 아쉽게 막을 내렸지만, 훗날 영주는 산중에서 살 계획이었다. 된장찌개와 말차, 감잎차로 이어진 회포를 3차까지 이어 거하게 풀었던건만, 그래도 헤어지기 가 못내 서운한 시각에 그녀가 들어왔다.

"언니와 저는 어떤 인연이었기에 이렇게 만났을까요?"

절의 수행자들이 깨어나는 새벽3시에도 나의 무명은 까마득하지만 하여, 맑은 차와 영감 어린 음악에 의지해서도 어렴풋이 짐작만 해볼 뿐이다. 자유기고가, blog.naver.com/owisdom

행복한 삶을 위한, 신과 심신건강 身心健康 박지숙 박사 한·양방 의료센터 salm 마인드힐링연구소

어떻게 하면 人生이 술술 풀릴까요? 1

"나는 뭘 해도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라는 생각을 갖고 괴로워하거나 힘든 사람들은 일단 그 멘트 자체를 확 뜯어 고쳐야 한다. 뭘 해도 되는 일이 없고, 왜 이리 일이 안 풀리고 꼬이냐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순간부터 내 인생은 더 꼬이고, 뭘 해도 정말로 더 안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릴까"에 대하여 고민하고 생각해보자.

첫 번째, 죽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

1. 돈이 없어 죽겠어요 없는데 있는척 할 필요도 없지만 없다고 누가 보태주는 것도 아닌 돈. 없는 게 흉도 아니지만 자랑도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가 자기 돈을 뺏어 가나 항상 돈 없다고 입을 피운다. 뭘 돈 없다고 투덜거리는 사람들은 정말로 돈이 없어서 죽을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2. 어디 한 군데 성한데가 없어요, 늘 아픈 곳만 찾다니고 기다리는 사람만 남 투가 멀다하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골골대는 사람도 잘 살기 힘들다. 물론 정말로 여기저기 아

파서 하는 소리일수도 있겠지만 정도 차이고 습관적인 사람들도 많다. 모든 관심과 초점을 자신의 건강과 통증에만 집중시켜 과민하게 반응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도 곁에 있기 싫어하고 다들 떠나간다. 아픈만큼 생활습관도 개선하고 열심히 치료하려 다니며 최선을 다하면 된다. 내가 아프고 짜증난다고 남들에게 화풀이를 하고 불 때마다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도 고달프다. 왜 남에게까지 그 스트레스를 전가하려 하는가?(물론 여기서 말하는 아픈이나 통증 등은 중병이나 특정 질병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습관적 입술 건강염려증 등을 얘기함)

3. 뭘 먹고 살지 모르겠어요 뭘 먹고 살지 모르겠다고 투덜거릴 시간에 뭘 먹고 살지 찾아 보는편이 더 효율적이다. 뭘 해도 밥이야 먹고 산다. 내가 뭘 먹고 살지 모르겠다고 불평해도 남들이 날 먹여 살려주지는 않는다. 다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고 골치 아프다. 다들 자기 코가 석자인편에 서로 도움도 안되는 투덜거림으로 에너지를 소진할 필요가 없다. 매일 뭘 먹고 살지 모르겠다고 입버릇처럼 달고 살면 정말 먹고 살 일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4. 죽지 못해 살고 있어요 항상 그렇게 너스레를 떠는 사람들은 늘 습관적으로 얘기한다. 말정히 소중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말이다. 죽지못해 마치 못해 사는 삶은 사는 의미가 없다. 누구나 각자의 소임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귀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로 죽고 싶은 사람은 정말로 마지못해 사는 사람은 그런 말 안한다. 아니 할 수가 없다. 죽지 못해 살고 있다고 징징대도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당신을 죽이지도 살리지도 않는다. 당신의 삶을 해결할 사람은 오직 바로 당신 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마디로 죽는소리만 늘어놓는 사람치고 잘되는 사람 못 봤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 또한 보지 못했다. 이런 사람에게 좋은 기운과 에너지가 오다가도 재수가 없어져서 사라지게 되어 있다. 매일 부정적인 생각과 말로 나쁜 기운만 끌어 당기는데 뭘 일이 잘되겠는가? 이 세상은 좋다는 말, 좋다는 행동만 다 하고 살아도 만만치 않다. 그만큼 내가 생각하고 무심코 내뱉는 말의 힘과 영향력은 내 삶의 성패를 가를 정도로 엄청난 파워로 작용한다.

(02)576-7575



백상 거사의 고무신코 만행화이야기 2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신발 사업으로 전환하게 된 것도 거룩한 부처님의 불법을 배우게 돼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전생의 인연으로 금생에 사부대중 만행화를 제작하게 된 게 아닐까 저는 늘 생각 하곤 합니다. 지난 2004년에는 신발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만들어야 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가까운 경기도 오포

50여 스님들 발 재보며 합격점 받아

을 백련암에 찾아가 법민 스님을 찾아 빈 적이 있었습니다. 스님께서도 흔쾌히 만행화가 기존의 고무신과 흡사 하면서도 발도 편안하고 스님 신발에 적합하다 하시며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난 뒤, 보급에 앞서 여러 대중스님께 선을 보여서 합격점을 받은 후에 만행화를 만들어 보급하는게 도리이지 그것이 정말로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남 장성 백양사에 계셨던 서운 큰스님께서 열반에 드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불자로서 큰스님의 다비식을 불교TV를 통해서만 본다는 것이 너무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때에 백련암 법민 스님께서 제게 서운 큰스님의 49재에 함께 가자고 권유를 하셔서 저는 여러 스님을 모시고 백양사의 49재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죄송스러웠던 마음이 어느 정도는 수그러들면서 마음이 편안해졌고, 제가 이 곳에서 무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백양사 내에는 다연원이라는 찾집이 있는데, 그곳에는 세민 스님, 운탈 스님 등 많은 대중 스님들

께서 자리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법민 스님께 오 늘 이 곳에 계신 스님의 발 치수를 재어서 만행화를 모든 스님들께 무상으로 만들어 드리고 싶다고 말씀 드렸고, 법민 스님께서 좋은 생각이라며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곧 법민 스님께서 대중스님들께 말씀을 해주셨고, 스님들께서는 정말 기뻐하시면서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50여 스님들의 발을 차례차례 보아가며 발의 골격이나 볼의 넓이 등을 재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수행하시는 스님들의 발은 일반 대중들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게 됐고 그 경험들이 지금 저에겐 소중한 재산이 됐습니다. 한편으로 서운 큰스님의 49재 범공양을 한다는 생각에 큰 환희심이 생겼던 정말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로인해 만행화의 인지도도 쌓을 수 있게 됐던 일이니 저로서는 다시금 되새겨 보아도 뿌듯하고 행복한 시간으로 떠오르곤 합니다.

제 자신이 불법승 삼보에 귀의 한 것이 이 일을 통해 또 한 번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때였습니다. (02)733-5715

행복의 씨앗을 드립니다. www.dongsanbud.net. 2009년도 35기 신입생 모집안내. 모 집 학 과 불교학과 (2년과정, 토요일,목요일,토신반) 불교다도학과(3년) / 불교미술학과(3년) / 불교한문학과(2년) / 사찰음식문화학과(1년) 불교학과 교과목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교 수 진 불교학과 • 무진장스님(본대학 학장) • 박 중(동산불교대학교수) • 김형준(동산불교대학교수) •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 보각스님(승가대학교수) • 최중석(금강대학교수) • 이평래(충남대학교수) • 김호귀(동국대학교수) • 윤열수(문화재단문원) • 종석스님(승가대학교수) • 정영수(동국대학교수) • 최봉수(동국대학교수) • 주명철(동명대학교수) • 정병조(동국대학교수) • 차차석(동명대학교수) • 김상현(동국대학교수) • 모주스님(동국대학교수) • 법상스님(승가대학교수) • 불교다도학과(박희준교수) • 불교미술학과(법민스님) • 불교한문학과(심재동교수) • 사찰음식문화학과 (정산스님) 모집인원 및 개강일 불교학과 (8월 8일 입학식) 180명, 토요일: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목요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토신반 불교다도학과 : 30명, 9월 8일(화) 오후 2시 불교미술학과 : 20명, 9월 9일(수) 오전 10시 30분 불교한문학과 : 30명, 9월 3일(목) 오후 7시 사찰음식문화학과 : 20명, 9월 9일(수) 오후 2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대학 사무처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732-1206~8, FAX 732-1207